**구리시민께 드리는 말씀**

**시민운동을 시작하며**

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!

**박영순 전 구리시장** 입니다.

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오늘 저는 **안승남 구리시장에 의해 침체와 혼란을 겪고 있는 구리시정을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**, 전직 시장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**시정 현안에 대한 따끔한 비판**과 시정발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**정책적 대안을 제시**하기 위하여, **시민운동가로서 새로운 출발**을 시작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

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, 저는 우선 구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그것은 다름 아니 오라, **저의 불찰과 부덕으로 2015.12.10.** 선거법 재판 결과, **시장 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긴 채, 시장직에서 도중하차** 할 수 밖에 없었고, 그 결과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구리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**여러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표류**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그 중에서도 **구리월드디자인시티(GWDC)사업**은 저의 재임 중 **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**을 이루어낸 후, **30억달러(3조6천억원) 외자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(IA)까지** 체결하여 **행안부에 제출**해 놓은 상태였지만, 저의 중도 퇴임 후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 하던 중 갑자기 선장이 바뀌어 대양을 항해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선장의 미숙한 항해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는 선박처럼, **GWDC 사업은 지난 4년 5개월여 동안 제 후임 2명의 시장들에 의해 사실상 중단(종료) 된 채**, 그 자리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참으로 원통〮절통 한 것은 이들이 하나 같이 **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지연 시켰거나, 중단 시켜놓고**, 그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애먼 **전임 시장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**입니다.

사랑하는 시민 여러분!

제가 시민 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**안승남 시장이 그의 1호 시장선거공약인 「GWDC 사업 재개 약속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 동안 GWDC 사업을 중단(사실상 종료) 시켜놓고**, 시간을 끌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**이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제가 시민운동가로 나설 수 밖에**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

1. **안시장은 민선 구리시장으로서 1호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**

첫째, **「GWDC 사업재개」를 1호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놓고**, 정당한 이유 없이 이 **사업을 중단(종료)** 시켰습니다. 안시장 임기 반환점이 다 되가는데, 행안부 투자심사에 상정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**1호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**.

둘째, 이 사업의 **미국 측 파트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**. **지난 2018년 11월 안시장은 미국 뉴욕을 방문**하여, 미국측 대표들을 불러놓고, 이 사업기본계약서인 **개발협약서(DA)**의 5년 기한이 종료되면 새로운 **후속 DA를** **미국측(기존 DA의 "을"측)과 체결하겠다**는 의미로**, "IDAB 재출범식"**을 갖고 **GWDC 사업 재개를 공식** **선언** 했습니다. 그러나, 이듬해 3월 안시장은 미국측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**일방적으로 DA종료를 통보**해 버린 후, **후속 DA체결 약속을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**

이것이 바로 이 **사업이 중단(종료)된 직접적인 이유**입니다.

셋째, **박영순 전임 시장에게 GWDC 사업 추진의 전권을 위임하여,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**. 박 전 시장에게 **전권**을 주겠다는 약속은 안시장의 예비후보자 **공약집에도 명기** 되어 있고, 안시장이 **미국측 대표에 보낸 공문** 메일에도 분명하게 **전권(full authority)**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.

자타가 공인 하듯, 박 전 시장은 10여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해 온 당사자이기에 GWDC사업을 지지하는 구리시민들은 **안시장의 제1호 공약과 박 전 시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믿고** 민주당후보 경선 때부터 **안시장을 뜨겁게 지지했고**, 그 결과 그는 **민주당 후보**가 됐고 **본선**에서 **압승**했습니다.

한편, **미국측(기존 DA의 "을")**도 10여년 이 사업을 추진해 온 **박 전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안 시장의 공문 내용을 믿고 이 사업 재개에 조건부(후속 DA체결) 동의를 했던 것**이고, 더욱이 2018년 11월 안시장이 **뉴욕 방문** 시 공식 행사에서 **공개적으로 GWDC사업 재개를 선언**했기 때문에 **안시장**과 **구리시**, 그리고 **박 전 시장**을 **믿고** **많은 금액을 투입**하여 **마스터플랜 수립**은 물론, 미국 기업 및 외자유치를 담당할 **미국내 법인 설립 준비까지 모두 완료**해 놓았습니다. 그런데 **이제 와서 안시장**은 이 사업을 **미국측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** 결국 **저는 안시장 때문에 미국측에 큰 실수를 한 셈**이 되었고, **지난 10여년 미국측과 쌓아 놓은 소중한 신뢰도 모두 무너질 위기**에 처했습니다.

존경하는 시민 여러분!

**전권**을 위임했다는 뜻은 **모든 권한을 100% 넘겨 준다는 것**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.

안시장은 예비후보자 **공약집(7쪽)**에서 **박 전 시장**이 GWDC사업추진의 **전권**을 행사 할 수 있도록, **조례**를 만들어 주겠다고 **공약**해 놓고,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. **사업 추진**의 **전권**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**예산**과 **인력**과 **정책결정권**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, 예산(비용)〮인력은 차치하고 라도, **전권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책 결정권 마저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.**

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**가장 선결 되어야 할 문제**는 2019.5.8. 기존 DA의 종료 후, **즉시 후속 DA(개발협약서)**를 **체결** 하는 일이었습니다. 후속 DA체결은 이 사업 재개를 위해 미국측과 약속했던 사항이고, 또 **저도 전권을 갖고 있는 입장**에서 IA체결을 준비하여 행안부 투자 심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**후속 DA를 즉시 체결하여야만 한다고 그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**, 안시장은 **저의 판단(결정)을 거부하고, 만 1년 동안 후속 DA체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**. 그러면서 먼저 IA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안시장이 이 같은 **핵심적 사항**에 대해 **저의 판단**을 **무시**한다면, 이미 저에게 **전권은 없는 것**입니다.

결국, 안시장은 **전권을 준다고 저를 속였고, 거짓 공약을 한 것입니다**.

**2. GWDC 사업이 중단된 직접적인 이유는 안시장이 미국측과의 당초 약속을 깨고, 기존 DA(개발협약서)의 "을"측과 후속 DA를 체결 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, 안시장이 기존의 "을"을 배제하고, 제3의 새로운 업체와 D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.**

**안시장은 기존 DA의 "을"측과 후속 DA를 체결할 수 없는 이유를, "을"측이 투자자가 아니고 기획〮제안사이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. (2019.12.3. 구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시)**

**이 답변은 DA체결의 동기〮목적〮내용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,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혀 드립니다.**

첫째, DA체결의 직접적 동기는 **그린벨트 해제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DA체결 제출을 요구** 했을 뿐만 아니라, "을"측(미국측)에서도 "갑"측(구리시)에 대해 이 사업추진 구도 및 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MOA(협약)체결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.

둘째, DA내용상 이 사업의 핵심 구도는 **"갑"의 역할**(의무)은 그린벨트해제등 **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** 완료까지 이고, **"을"의 의무**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업 유치〮엑스포 유치〮외자 유치등 **미국측으로부터 유치를 전담**하며, "갑"의 의무가 끝나면 "을"이 **SPC를 설립**하여 이 SPC가 "갑"으로부터 **토지를 매입**하여 **건축〮분양〮입주〮운영**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**"갑"과 "을"의 의무(역할)를 명확히 구분**하였습니다.

셋째, 상기 내용을 근간으로 한 **기존의 DA는 2014.5.8. 구리시의회의 의결**을 거친 후 다음날 "갑"과 "을" 양측 서명을 거쳐 바로 **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**되었고, 그 후 5회 추가 심사를 거친 후 **2015.3.19.** 제7차 심사 결과 드디어 **조건부 그린벨트해제 의결**을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, **국토부는 기존의 DA** 내용에 대해 이견 없이 **100% 수용, 승인**하였으며, **행안부** **투자심사(5회까지**) 과정에서도 DA에 대해서 단 **한 건의 지적이나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**. 다만, **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**(2015.12.)에서, "향후 DA의 추가 약정 등을 통해 3개항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" 하였을 뿐이었지, 기존DA의 기본 구도 및 핵심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이 없었을 뿐 더러, **"을"이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로 교체하여 다시 DA를 체결하라는 지시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**입니다.

이와 같이, 감사원은 향후 **추가 약정 시** "외국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라"고 구리시에 지시하였기 때문에, **양 당사자의 의지만 있다면** 기존의 **"을"과 후속 DA 체결시 얼마든지 반영**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.

넷째, 따라서 상기 첫째~셋째 내용을 종합해 볼 때, **기존의 DA**는 **국토부〮행안부등 중앙정부에서 인정**하고 있는 것이며, **감사원에서도 기존 DA의 "을"의 지위에 대해 인정**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안시장 주장대로 **"을"이 투자자가 아니고 기획〮제안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것이라면, 왜 국토부나 행안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"을"을 투자자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겠느냐? 이 말입니다**.

**"을"의 역할**은 외자 유치를 포함한 기업 유치〮엑스포 유치등 모든 **포괄적인 유치 업무를 과연 수행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관건**인 것인데, **만약 "을"이 기존의 포괄적 유치업무 책임자가 아닌 단순한 자금 투자자로 교체 될 경우,** 이 투자자가 과연 **2천여개 기업 유치와 연간 30여회의 국제 디자인** **엑스포를 유치해 올 수 있겠는지, 보장 할 수 없는 것**이며, 10여년 미국측과 일해 온 저의 경험상 이것은 **거의 불가능** 한 것입니다.

따라서, DA의 "을"의 역할은 외자유치를 포함해 모든 유치업무를 수행해 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, **굳이 (외국)투자자가 반드시 DA의 "을"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, 이 내용을 중앙정부도 이견없이 승인했던 것입니다**. 실제로 **기존 DA의 "을"**은 2015.10.12. **30억 달러** 외자유치에 관한 **투자협정(IA) 체결**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, 기타 기업〮엑스포 유치에 관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 하는 등 **"을"의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, 그린벨트 조건부해제 의결과 행안부 투자심사도 가능**했던 것입니다.

결론적으로, **지난 DA 협약기간 5년 동안, "을"은 DA상 의무를 다하여 GB조건부 해제 의결에 기여** 했지만, **구리시**는 저의 중도 퇴임 후 **4년 6개월 동안** 오히려 이 **사업을 중단 시킴으로서 DA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**과 함께 **책임문제도 발생**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단언컨대, 안시장이 시의회 답변시 **"기존의 "을"이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DA를 기존의 "을"과 체결 할 수 없다"**, 그리고 **"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다"**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**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하는 가짜 뉴스로서**, 이것은 **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업구도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는 것**이기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,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또한, 기존의 "을"은 2015년에도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IA체결 실적이 있기 때문에, **만약 안시장이 미국측("을")과 당초 약속대로 지난해 5.8. 직후 후속 DA를 체결하였더라면, "을"은 이미 IA를 유치하였을 것**이고, **지난해 10월 행안부 투자심사도 통과**하여**, 지금쯤은 토지보상 단계가 착수** 되었을 것입니다.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!

이 밖에도 안시장의 지난해 12월 시의회 답변 내용중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이 다수 있으나, 여기서 더 이상 일일히 열거하지는 않고, 기회 있는대로 낱낱히 반박 할 것입니다.

**3. 안시장이 지난해 3월 기존의 DA를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상 위법행위로 원천 "무효"이며, 기존의 DA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안시장의 위법〮부당한 행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**

**첫째,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구리시의 DA종료 통보는 "무효" 입니다.**

안시장은 2019년 3월 "을"에게 **DA종료 통보**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에 **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결) 8호**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것인데, 이 절차를 위반하여 **구리시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DA종료 통보 행위는 "무효"**이며, **기존의 DA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.**

* **지방자치법 제39조 (지방의회 의결) 제8호**

"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부담이나 **권리의 포기**" – 이 조항에 의거, **DA종료 통보행위**는 **구리시의 권리를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리시의회 사전 의결은 필수적**입니다.

🟏 2017.11.29. **서울중앙지법 판례**에 의하면, **지방자치 단체**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한 계약의 경우, 그 **계약을 변경 하고자 할 때,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**. 그런데 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 변경은 **무효**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.

**둘째,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.**

**형법 제122조(직무유기)**는 공무원이 **정당한 이유없이** 그 **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**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**안시장**과 **관계 공무원** 및 **구리시의회의 직무유기 혐의**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

1. **"정당한 이유 없이" 기존의 DA를 일방 종료**시키고 후속 DA체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, **GWDC 사업이 1년여 중단(종료)** 됐습니다.

결과적으로, 구리 시민의 **공익을 크게 해치고** 있습니다.

1. **IA체결은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"구리시가 직접 외자 유치 IA를 체결 할 것"을 지시**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, **안시장이 시의회 답변** 시 "현재 시는 외국인 **투자자가** 총사업비 전체를 조달하겠다는 **명확한 투자의사를 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**입니다. 그렇지만,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가 확고한 투자 의사를 밝혀 오지 않는다면 시는 불가피하게 **출구 전략**을 찾아야만 합니다" 라고 **마치 남의 일처럼 답변** 한 것은, **구리시가 직접 외국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, 시간만 끌면서 막연하게 "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겠다"**는 것으로서, 이것은 안시장(구리시)이 **직무상의 의무(구리시가 직접 외국투자계약체결)를 유기(포기)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**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**"정당한 이유"가 될 수 없으며**, "무책임 행정의 극치"의 표본입니다.

🟏 또한, 안시장이 **기존의 "을"에게** **후속DA를 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**, **선 IA 유치를 해오라고 요구 하는 것**은 상식적으로도 **생억지**에 불과합니다.

* 뿐만 아니라, **전임 시장인 저에게 "전권"을 준다고 만천하에 공약해 놓고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**, 정작 **현 구리시장이 해야 할 외자유치업무**를 왜 실권도 없는 **전직 시장에게 외자 유치 해오지 않느냐고 책임을 떠 넘기고** 있는지,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.
* 비록, 이와 같이 **후속 DA약속도 안 지키면서 저에게 외자유치를 해 오라는** **안시장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**이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 사업을 빨리 살려야 하겠다는 일념에서,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**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**인 A사로부터 **10억 달러**(1조 2천억원) **투자유치협정문(IA) 초안**까지 작성하여 지난 해 **8. 29. 구리시에 제출**하였고, 이어 9.2. 과 9.11. **2회 내용증명**으로 안시장에게 "이제 IA협정문 초안까지 제출 됐으니, **안시장 약속대로 IA와 후속 DA를 조속히 구리시 의회에 동시에 부의**하여 통과시켜 줄 것"을 **간곡히 요청**하였습니다.
* 그러나**, 안시장의 철저한 의도적 비협조**로 결국 모두 **무산**되고 말았습니다. **후속 DA체결 없이**는 외자유치 **IA도 무의미**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와 관련, 안시장의 지난해 **12.3. 시의회 답변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위증으로 판단**되어 추후 사실 관계 전모를 밝히고자 합니다.
* 특히, 그 중에서도 시의회 답변 내용 중, "**당초에는 시의 요구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협약서(IA)를 먼저 체결 하겠다고 했고**, **박영순 전 시장**이 미국계 A투자사를 데리고 온 것이나,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**언젠가부터 은근 슬쩍** '개발협약서(DA)가 없어서 투자협약을 받을 수 없다' 거나 '법적으로 개발협약서 없는 투자협약은 있을 수 없다'고 **말을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**."는 이 부분**(IA를 먼저 체결하겠다고 했다는 부분과 은근 슬쩍 말을 바꿔 버렸다는 부분)**은 **전혀 사실이 아닙니다**.

다시 말씀드려, **저는 결코 "IA를 먼저 체결하겠다"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**. 저의 일관된 입장은, IA에 앞서 **후속 DA가 먼저 체결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**이었지만 안시장이 IA를 먼저 체결해 오라고 고집을 부려서, 그 **절충안으로 IA와 후속 DA를 동시에 체결(시의회 동시 통과) 할 것을 제의**했고, 이에 대해 **안시장도 정책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**입니다.

이것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**IA를 유치** 해온 **전직 시장에 대한 몰염치한 책임 전가 행위**이며, 4반세기 동안 오직 구리시 발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**박영순에 대한** **인격 모독**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1. 다음은 **구리시의회 직무유기 혐의 문제**입니다. 안시장은 DA종료 통보 공문을 발송하기 전인 2019.3.5. 오전 **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DA종료 통보 계획을 통보**했다고 합니다.

구리시의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, 이것도 사실상 **구리시의회의 "직무유기"**에 해당 된다고 생각 됩니다.

왜냐하면, **구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"을"측에 통보하도록 안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**

또한, **"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" 제3조(적용범위) 제1호**에 「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」 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DA 종료 통보는 **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것**입니다.

**셋째,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야기 됩니다.**

**안시장**이 2018.11. 뉴욕에서 **미국측 대표들 앞에서 GWDC 사업 재개를 공식선언 한 것**은 기존의 **"을"과 후속 DA를 체결하겠다는데 동의한 것**으로서, **"을"측은 이를 믿고 마스터플랜수립 용역과 미국내 유치전담 법인설립 준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**, 만약 "정당한 이유 없이"이 사업이 파기(종료)될 경우, 국제사기죄등 형사상 문제와 최소한 안시장 취임 후 투입된 상기 비용 등에 대한 **민사상 손해배상 문제**등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.

**왜, 굳이 구리시가 90%이상 준비되어 있는 사업을 폐기하고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지요?**

**넷째, 100억원대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야기 됩니다.**

지난 13년여 동안 GWDC사업에 투입된 **직〮간접 구리시 예산이 약 100억원대로 추정**되고 있습니다. 만약 이 사업을 폐기하고,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**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 문제**와 10여년을 허송세월로 시간만 낭비해 버린 문제등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.

그간 이 사업은 조건부 그린벨트해제 의결 등 **행정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,** 또 **마스터플랜 완성** 및 **미국측 유치 준비도 90%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,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사업을 종료 시키고, 막대한 예산낭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.**

**다섯째, 제1호 공약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파기하는 전례를 결코남겨서는** **안됩니다**.

민선 시장의 **제1호 공약사업**은 4년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안 시장은 **지난 2여년 동안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단 한번도 반상회보등에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.**

이와 같이 **"정당한 이유 없이" 핵심 공약 사업을 함부로 폐기**한다면, 안시장은 **오직 당선 될 목적으로 1호 사업이라고 거짓 공약으로 시민들을 속였다는 비난**을 면치 못 할 것이고, 이에 대해 **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.**

선거에서 오로지 **당선될 목적**으로 아무렇게나 **공약** 내걸고 **당선된 후,** 정당한 이유없이 **헌신짝 버리듯 선거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구리시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.**

**여섯째, 이와 같은 미국측과의 국제적 약속 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, 미국과 한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는 점, 유의해야 합니다.**

**4. 안시장과 구리시의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 합니다.**

1. **기존 DA의 "을"과 후속 DA를 즉시 체결하여 GWDC 사업을 살려 내십시오.**

**지난해 3월 구리시의 "DA 종료 통보 행위"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원천적 "무효" 이며, 또 후속 DA 체결은 미국측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IA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인 바,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와 협의 하에 즉시 후속 DA를 기존 DA의 "을"과 체결하여, 이 사업을 살려 내기 바랍니다.**

1. **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또는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운영을 요구합니다.**

**만약 전항의 요구 사항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, 시민 공청회 및 구리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운영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이행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**

**5. 저의 향후 시민운동 활동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**

**첫째, GWDC 사업 살리기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**

상기 보고 드린 **안시장의 위법〮부당한 행정행위**에 대해 **청와대 청원, 감사원 감사, 검찰고발, 유관 중앙부처에 민원 제기, 시민 서명운동**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, 반드시 GWDC 살려내겠습니다.

**둘째, 오랜 시장직 수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, GWDC사업 이외에도 시정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등 정책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겠습니다.**

* **GWDC와 함께 토평동 잔여 GB 개발(일자리 창출〮세수 확대)**
* **농수산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등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**
* **교육〮문화〮복지〮환경〮교통〮보건〮의료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 개발**
* **고구려〮조선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 강구**
* **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 문제등**

**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!**

예기치 못했던 **코로나19 사태**로 인하여 전 세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, **이제 먹고 사는 문제, 즉 경제문제**가 바이러스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 올 것입니다.

지난 10여년간 구리시가 시민여러분과 함께 추진해온 **GWDC 사업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 회생을 위해 준비된 특단의 대책**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제 **중앙정부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 재인식〮재평가 할 것**으로 확신합니다.

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!

안시장이 시민과의 제1호 공약사업 약속을 지켜서 **GWDC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, 전직 시장인 제가 굳이 시민운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**.

그런데, 불행하게도, **안시장은 GWDC와 관련한 모든 약속을 다 파기 했습니다.**

그러나 **저는 이 사업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GWDC는 2010년 민선 5기, 2014년 민선 6기 구리시장 선거시 저의 1번 공약 사업**이었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, 저는 끝까지 이 사업을 살려내야 합니다. **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**.

이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, 지금 형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**시민운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불의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길** 밖에 없습니다.

편안히 은퇴생활을 즐겨야 할 제가 오죽하면 시민운동에 뛰어 들었을지,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대한민국 수도 서울 **한강변**에 마지막 남아 있는 **100만평 황금의 땅**, **구리 토평동** 그린벨트는 **현대판 "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"**이 되어야 합니다.

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**일자리 창출 없는 신도시 유치는 절대 반대** 입니다.

**교통지옥**은 불을 보듯 뻔하며, **서울의 투기세력들 좋은 일**만 하게 되고, 구리시민에게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.

반면에, **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 및 마스터 플랜 완성, 미국측 유치 준비 완료** 등 **모든 면에서 90%이상 준비돼 있고, 8만명 좋은 일자리가 예정돼 있는, 자족도시 "구리월드디자인시티(GWDC)"** 사업이 **성공하는 그 날까지 구리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**

GWDC 사업은 특히 양질의 **일자리 8만명** 창출이 예상되어, 코로나19 이후 **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사업**으로 **중앙정부로부터 인정** 받을 수 있다고 **확신** 합니다.

**시민 여러분! 도와 주십시오!**

**감사합니다!**

**2020. 5. 8. (전) 구리시장 박영순 올림**